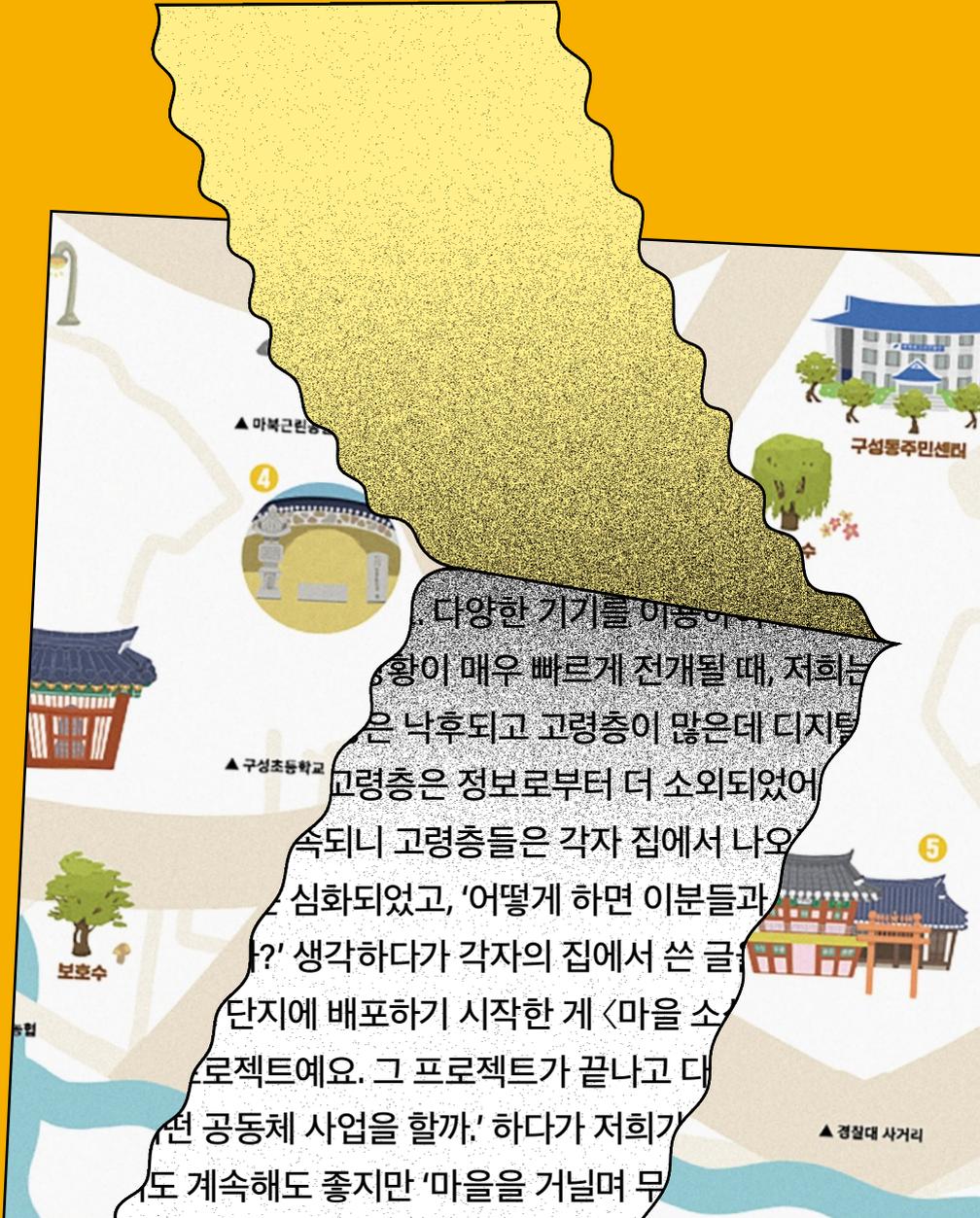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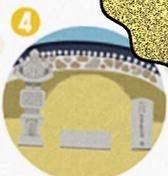


Behind book 구성을구성하다편

비하인드북



▲ 마복근린공



▲ 구성초등학교

구성동주민센터

보호수

▲ 경일대 사거리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
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될 때, 저희는
은 낙후되고 고령층이 많은데 디지털
고령층은 정보로부터 더 소외되었어
속되니 고령층들은 각자 집에서 나오
심화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 생각하다가 각자의 집에서 쓴 글
단지에 배포하기 시작한 게 <마을 소
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
전 공동체 사업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도 계속해도 좋지만 '마을을 거닐며 무

Behind book 구성을구성하다 편

이 책은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한
<기록의-기록> with 만물작업소 프로젝트
첫 번째 결과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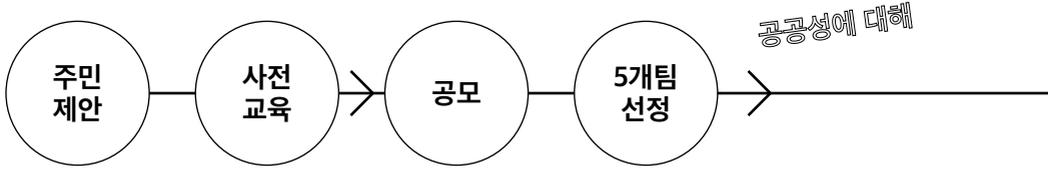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작당한다는 것은 사실
반은 괴롭고 반은 즐거운 일이 되기
마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갈등이 생기고, 그럼에도 소소한
웃음과 찐한 교훈은 남게 되니까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끝에는 '좋았다면
추억이고 아팠다면 경험이다.'라는
소화가 남습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갈등보다 웃음과 교훈이 조금 더 드러난
'잘된' 결과물이 성과를 증명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전해지지 않은
그 뒤의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운영에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착오는 대체로 사람들의
감정으로 불거졌다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즾음에는 결과물에 대한 보람으로 남아
무엇이 그 시행착오를 만들었는지
잊게 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의 순간을
되짚기 위해 그 이면, 이전의 과정을
관찰하고 묻고 기록했습니다.

플랜포히어는 인터뷰와 워크숍을 통해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같은 질문에도 다른
답answer을 들려주었고 때로 다른
질문에도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behind
story를 들려주었습니다. <기록의-
기록>은 질문을 통해 프로젝트와
사람들의 연결을 되짚어 이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발견한 무수한 질문들은 우리
모두가 놓친 시행착오의 순간을
상기시켰고 우리는 그 질문과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고 마을마다 한 장의 지도가
남겨졌습니다. 우리는 지도를 만든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갈등, 웃음과
교훈을 버무린 「비하인드북」과 더 나은
다음을 위한 「47개의 질문카드」를
남깁니다. 우리의 기록이 누군가의
또 다른 시작이 되길 바라며!

용인마을지도만들기 프로젝트 진행과정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기획과 준비

지속적으로-오래 가는

내부자들의 소통

도시와 공공

마을과 사람들

아카이브 프로젝트 <기록의-기록>진행과정

1. 조사

<용인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조사/관찰/기록을 위한
활동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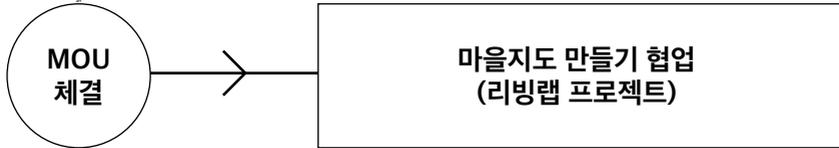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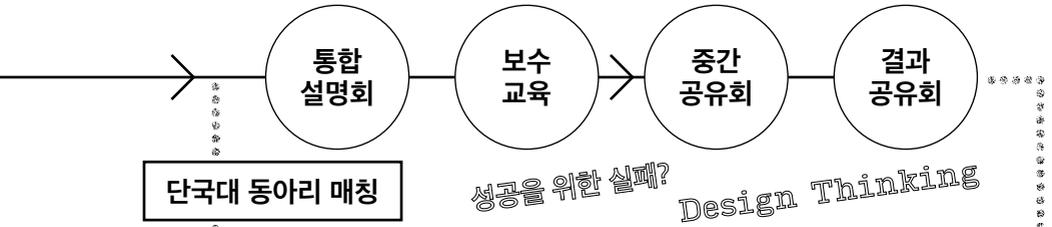
9월 중

2. 인터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구성원에게
질문을 던지고 프로젝트 과정
중의 어려움을 스스로 발견,
파악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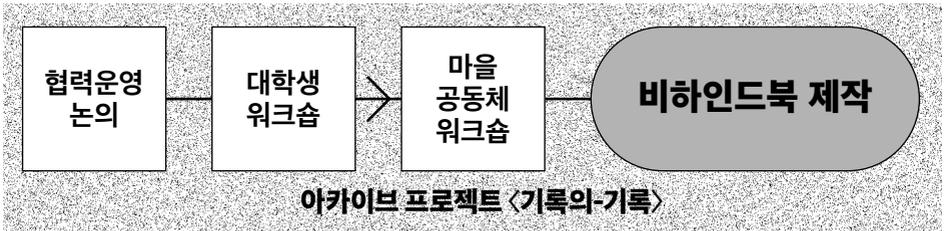
10월 5-9일 온라인 인터뷰
마을 모임 / 대학생 동아리
각 팀별 1회, 총 10회 진행

세대 간의 소통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다른 것과 틀린 것



용인문화재단 & 플랜포이어

3. 워크숍

인터뷰를 통해 발견한 주제를 돌아보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with 만물작업소

11월 12일 대학생 동아리 온라인 공유회 1회 진행
11월 15-17일 마을 모임별 오프라인 워크숍 각 1회, 총 4회 진행

4. 비하인드북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 '지도에 담지 못한 정보'가 아닌, '지도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시간의 흔적'을 담은 비하인드북(소책자)을 만든다.

12월 중

5. 질문카드

프로젝트 전체과정을 갈무리 하고, 다음의 기록 및 활동을 보완할 수 있는 질문카드를 제작한다.

12월 중





참가팀

구성을구성하다

용인 구성동을 중심으로 모인 마을 주민과 청년들의 친목은 자연스레 마을 활동으로 나아갔습니다.

2019년도에 만들어져 2020년에는 함께 마을지를 만들었고 2021년 지도에 문화유산을 담아 주민들이 산책하면서 마을을 관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대화한 사람들

강우빈 이주연 박은경

with 단국대 동아리 가객

“마을 주민들과 대학생 동아리가 만났을 때, 매뉴얼이 제시되어서 학교 측에서 학생들에게, 마을 팀에서 학생들에게 서로가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치가 필요한 프로젝트 같아요. 이렇게 낯선 두 집단이 모여서 누가 조금 더 발을 내밀고 조금 더 다가가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코로나 시국에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을 거란 생각을 하거든요.”

張旭

**마주하지 못하는
이웃들,
가려진 곳을
살피고 이야기
전하기**

**[구성을구성하다]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강우빈 처음에는 친목 활동으로 만나 마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주민분들이 한때는 마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행정이나 서류작업이 어려워 공동체 활동을 못 하고 계셨어요. 반대로 제가 운영하는 팀은 행정 서류작업은 할 수 있지만, 마을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요. 각자 생활을 하면서도 활동을 같이하면 '우리가 사는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구성을구성하다]가 시작되었어요.

이주연 요즘 이웃 간에 대화가 없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집 이야기와 이웃집 이야기가 서로 소통되기를 바랐어요. 우리 집 이야기가 담을 넘어서 서로의 이야기가 되어 공감하는 것이요. 마을의 이야기를 남기기 위해서 마을지를 만들면서 함께 마을지도 만들기까지 가게 되었어요.

공동체의 여러 활동 중

왜 '마을지도 만들기'였나요?

강우빈 2019년에 활동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마을지를 만들었어요. 왜 마을지를 만들었냐면, 그때가 한참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질 때였어요. 다양한 기기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상황이 매우 빠르게 전개될 때, 저희는 반대로 갔어요. 구성동은 낙후되고 고령층이 많은데 디지털 기기가 발달할수록 고령층은 정보로부터 더 소외되었어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 고령층들은 각자 집에서 나오지 못해 우울감이 심화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각자의 집에서 쓴 글을 공유하고 모아 아파트 단지에 배포하기 시작한 게 <마을 소식지 전하기> 프로젝트예요.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음 해가 되어 '어떤 공동체 사업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하는 마을지 만들기도 계속해도 좋지만 '마을을 거닐며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유산들을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을지도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시작된
마을지도 만들기**

지도를 만드는 과정은 어땠나요?

강우빈 구성동이 다른 지역보다 도드라지는 것이 있다면 적어도 수령이 400년 이상 되는 큰 고목이 여러 그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무들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고 지나가는 인도에도 있고, 사유지 안에 있기도 해요. 오래된 나무들이 가로수처럼 서 있는 광경을 마주하면 조금 낯선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고목들을 중심으로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구성동 주민센터와 조사를 해보니 등록해 놓고 관리하는 보호수는 다섯 그루 정도밖에 안 되고 대다수는 방치되어 있었어요. 시민들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요. 그래서 보호수 기록을 마을지도 만들기 방향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보호수를 가르는 기준이 좀 애매하고, 나무 하나를 가지고 주제를 전개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호수를 지키자는 것은 알겠는데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가객]팀과 협업하면서 마을지도 만들기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기로 했어요. 마을 보호수에서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 보물찾기 컨셉으로 마을지도를 만들기로 했어요.

역사를 지도 안에 담으려면

저희가 보는 지도보다

내용이 훨씬 방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도는 어떤 형태로 나오나요?

강우빈

저희가 만든 지도의 목적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백과사전, 용인문화원에 방대한 자료가 있으니까요. 다만 지도를 보며 산책하면서 '우리 집 앞에 이런 게 있었네?', '주민센터 앞에 나무가 큰 게 있었는데.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조금 더 유익함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어요.

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셨나요?

강우빈 용인향교라는 곳은 우리나라 전체 향교의 역사에서도 족적을 남길 만한 성과가 있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여러 번 불에 타고 세 번 정도 이사를 해서 현재의 위치로 왔어요.

향교를 관리하는 분을 만났는데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분은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70년 이상 평생을 여기서 사신 분인데, 이제는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에 역사 문화 강의로 만나 뵈었고, 두 번째는 향교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인상 깊었어요.

생각보다 의미가 있는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는 실상이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오히려 용인시에서는 관심이 없고 경기도 차원에서 보수해주는 상황이었어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도 실제로 내방객은 많지가 않고

저희도 방문하고 나서야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박은경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몰라 질문을 받아도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차츰차츰 하나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 재미있었고, 사진 찍고 강의 듣는 것은 좋았어요. 멀리 지나가면서 문화유산을 쳐다눈 뵈어도 직접 보러 가본 적은 없는데, 팀원들과 직접 찾아가서 본다는 게 새로웠거든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가 지도를 함께 만들 작가님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붙였는데 그것을 보고 주민들이 많이들 오셨어요. 그중 한 분은 책을 만든 작가분인데 코로나로 활동이 차단되어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했던 차에 작가 모집 현수막을 보고 너무 반가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분을 보면서 '문제를 우리 안에서만 해결할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공동으로 진행하면 참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것도 있으신가요?

이주연 처음에 마을 보호수로 지도를 만들자고 했을 때 보호수를 조사했는데 보호수가 정말 뜻하지 않는 곳에도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구성동 주민센터 안에 있는 느티나무였어요. 조선 시대 고을의 유일한 흔적이 바로 그 느티나무 딱 한 그루였어요. 느티나무 앞에서 단체 사진 찍은 걸 팀원이 보내줬는데 나무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 이 나무가 정말 하트였네. 우정이었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모르는 모든 역사를
다 기억하고 있는 저 나무를 베면
안 되겠다 싶어졌어요. '그 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하겠구나.' 싶었어요.**

박은경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 네다섯 살 때 구성동으로 들어왔고 <작은 도서관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지원사업을 많이 받았어요. 지원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풀 이름 찾기를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그때는 솔직히 곱핥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 마을지도 만들기는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우리 마을의 역사를 알아가는 게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도서관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었기에 저희는 바깥에 있는 입장이었어요. 주로 활동하는 건 애들이다 보니 저희는 바라보는 시선이었는데, 이번에 직접 진행하고 참여하면서 시선이 달라지고 주민의식이 생겼어요.

강우빈 처음에는 다들 지도 만드는 과정 자체를 헛갈려 했어요. 지도라는 것은 실제 어느 정도의 범위를 정한 다음 거기에 있는 지형지물을 직접 찾아가서 사진 자료도 담고 조사를 해보는 과정이에요. 막연하게 거리가 가깝다고 말한 곳은 실제로는 거리가 좀 있고, 멀다고 여긴 곳은 가까웠어요. 답사하면서 방문한 <장욱진 고택>은 고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앞에서 찻집을 운영하였어요. 찻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사실 지도 만들기의 수혜자는 저희의 구성원들이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지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은 어떠셨어요?

강우빈 저희 팀 대부분이 직장생활을 해서 마을 공동체 활동에 많은 시간을 길게 투자할 수 없었어요. 최대한 시간을 내어 두세 시간씩 사진촬영과 자료조사를 하러 다니고, 한 번에 쪽 모여 짧은 회의를 반복했어요.

다양한 요구와 중간 보고회 준비가 힘들었지만,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의무가 생기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좋게 보는 주의거든요. 지금 시간을 내서 인터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희끼리만 하면 대충 끝낼 수 있던 것도 의무가 부여되니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전에 지도 만들기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강우빈 지도 만들기 사업 전에 사전 워크숍을 한차례 했어요. 두 시간에서 세 시간 정도 했을까요? 흔히 할 수 있는 워크숍의 형태였고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마을의 유산, 주요 거점, 교통을 망라해서 찾아보며 전체적으로 지도를 조망할 수 있는 워크숍이었어요. 워크숍 후 실제로 마을지도 만들기에 돌입했는데 우리가 계획한 지도를 만드는 과정은 스스로 자료를 찾아야 하고 디자인팀이랑 소통도 해야 했어요. 실제 실사 지도를 펼쳐 놓고 트레이싱지를 올려 스케치한 것을 바탕으로 조금 더 약도화하고 범위를 좀 줄여보고 늘려보는

과정을 겪었다면 조금 더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좀 많이 헤맸던 것 같아요. 콘셉트 잡는 것부터도요. 지금 지도 시안이 겨우 나왔는데 받아보니 흔히 볼 수 있는 지도예요.

지도를 다 만들고서야 지도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워크숍 외에도 지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경험담이나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해요.

코로나로 인해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넣고 싶어 하셨는데 코로나 단계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라서 어려웠죠.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된다면 사전에 실무적인 교육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봐요.

박은경 코로나로 [가객]팀과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봤어요. 지도를 같이 만들긴 했지만, [가객]팀은 음악밴드로 구성된 팀이어서 구성동 역사의 장소에서 음악회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떠나는 곳이 아닌 머무르는 곳이 되기 위한 관찰과 기록

불편하셨던 점이나 힘들셨던 점은 뭐가 있었나요?

이주연 우리가 마을의 정보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을의 정보를 가진 분들하고 소통해서 정보를 받으려고 강사진을 모았을 때,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도전했어요. 그러나 막상 하면서는 강사로 지원한 분들과 시간 맞추는 게 어려웠고, 찾아가서 일일이 인사하면서 강사로 요청할 때 거절 당할까봐 걱정되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도 많고 도전이 좀 힘들었어요. 또 뜻하지 않게 흔쾌히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 제가 도와드리겠다.', '언제든지 해줄 수 있다.' 의외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또 감사하기도 했고요. 그 도전 의식이 좋았다고 느꼈어요.

마을지도 만들기에 도전하려는 다른 공동체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주연 좀 더 쉽게 갈 방법이 있다면 좋았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진 정보로만 하기엔 정보도 시간도 부족했어요. 서로 시간을 쪼개서 했던 거라서요. 만약에 전문적으로 한다면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못 했다는 아쉬운 점도 좀 있어요. 기왕이면 다 같이

한꺼번에 만나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 조율이 어려워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하고만 하다 보니 그 점은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을 작가 모집 현수막 광고를 보고 전화가 왔는데 “원고료를 주나요?” 물어봤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또 지원한 작가분을 만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차를 마시는 데 지원사업 예산에 다 포함되어있는 줄 알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공모사업을 한다면 공지에 원고료에 대해 정확히 전하고 만나야겠죠. 기왕 원고료가 있다면 더 많은 작가가 오겠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좀 아쉬워요.

강우빈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넓은 범위에서 시작해서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범위, 모든 범위를 지도에 다 나타낼 수는 없으니까요. 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지도이기 때문에 지도의 범위가 넓지 않을 거로 생각했어요. 내가 사는, 나와 인접한 마을. 행정동 내지, 법정동 안에서 두 개나 세 개 범위로 끝날 것 같았는데, 그 지도에 무엇을 담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올해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고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주연 우리가 발로 뛰어서 직접 만든 마을지도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도를 만들어서 책과 함께 나가는 건데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뭔가를 해냈다는 것에 감사하기도 해요. 요즘 현대인들 다 바쁘잖아요. 마을에 뭔가 좀 남기고 싶어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마을 원주민을 찾아다니고 또 그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우리의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서 정말 쪼개고 쪼개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지도를 만들었어요.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고 집을 많이 옮겨 다녀요. 한 마을에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잠깐 살아요. 2-3년 살다 전세 기간 끝나면 내 집이 아니니까 떠나거나, 내 집이어도 잠깐 살러 들어온 사람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법 때문에 잠깐 살다 떠나기도 하지만 이 고장에, 이 마을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마을지도는 역사와 마을이 가진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렸어요. 그 내용들을 마을지에 글로 남겼으니 누군가 왔을 때 '아, 구성동에는 이런 마을지도가

있었어.'라고 기억되면 좋겠어요. 그냥 떠나기보다는 마을을 기억할 수 있고, 기왕이면 안식처가 돼서 좀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우리와 소통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마을을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꼭 살고 싶어 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을이 더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좀 묵직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럼 마을을 위해서 더 많이 봉사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환대의 경험 관계와 세계의 확장

마을지도만들기에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가 가지는 목표가 있을까요?

강우빈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회의 때 거의 열다섯 명 넘는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1년을 돌이켜보니 '지원사업에 의존해서 공동체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면 지원사업 없이 [구성을구성하다]라는 취지에 맞게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해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더 큰 지원사업을 받거나 경기도나 전국구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끼리 비용 부분을 해결해서 봉사활동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하다못해 친목이라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이 끈을 놓지 말고 흐지부지되지 않게끔 열심히 재미있게 해보자.'하구요. 구성동이 지금 도시재생구역에 지정됐어요. 저 포함 구성원들이 함께 여러 가지로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예요.

**처음에 친목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을지도 만들기를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로 변하게 됐는지, 그 변화한 지점이 궁금해요.**

강우빈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해요.

마을에서 친목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확장도 있지만 결국 함께 얘기하는 주제가 내가 사는 곳에 관한 이야기, 하다못해 '보도블록이 거기만 없더라.' 결국 이런 이야기로 수렴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공적인 활동들을 더 깊게 알아가고, 알아보는데 그치지 않고 많은 정보를 발견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어요.

실제로 저희가 동장님 면담을 하다가 비석 하나가 그냥 길가에 방치된 것을 보고 바로 행정예 요청해서 공사업체가 방수포로 덮은 일도 있었어요.

**그러한 작은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활동들이 될 수 있겠네요.**

강우빈 네. 일단은 좀 재미있어야 하니까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너무 막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즐기는 방향 안에서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서로 좋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즐겁게 하고 있어요.

極樂寶殿

善人一念稱名号

至高金色聚虚空



왜 비하인드북이 되었을까?

플랜포히어와 <기록의-기록>을 준비하며

용인문화재단 서혜인 “활동 과정이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기록이 모이면 또 다른 발현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작년 문화도시 라운드 테이블에서 한 청년 활동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결과 지향적으로 사업이 흘러갈 때 우리는 과정의 소중함을 잊기도 하고, 각자가 발견한 소중한 이야기들이 공유되지 못한 채 묻혀버리기도 합니다.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약속한 후 한참 동안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또한, ‘과정은 사라진 채 결과물만 남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이었고, 이것이 비하인드북 제작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한 과정을 거쳐 결과에 도달한 사람들은 과정이
휘발되어 버렸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아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기록하지 않으니 기억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가치를 그 즉시 알아채지 못해서, 온 감각들을
결과물에 집중하느라, 또는 빠른 속도에 떠밀려가느라
우리는 과정을 놓치곤 합니다. 모래를 체에 받치면 굵은
모래만 남고 나머지는 흩어지는 것처럼, 관찰자의 시선과
감각에 섬세하게 날이 서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이니까요.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의 아카이브 작업을 처음
[플랜포히어]에 의뢰했던 것도, 지도를 만든 사람들과
지도가 만들어진 과정을 짚어보고자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참여자들이 지도에 담아내지 못한
소중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지 좀 더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기획자들의 체로 다시금 걸러보기 위해, 참여자 스스로
운영과정을 반추해보며 놓쳤던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마을지도를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하인드북이 마을지도를 만든 마을공동체와 대학생
동아리에게는 지난 과정을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앞으로 지역 기반의 활동을 잘 해내고 싶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가는 아니지만
흥미롭게 마을지도를 펼쳐 보았던 누군가가 있다면 한 장의
지도 이면에 담긴 이웃들의 고민과 노력을 따뜻한 시선으로
한 번 더 바라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은 날들을 위하여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내는
〈기록의-기록〉 비하인드 워크숍을 진행하며

만들작업소 이번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 시간을 지나왔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곱씹고 더듬어 한곳에 잘 모일 수 있도록 〈비하인드 워크숍〉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업 종료 후 남겨진 몇 개의 결과물은 프로젝트를 이끈 이들이 가지는 각각의 시선과 프로젝트 중에 생긴 크고 작은 마음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아쉬움 모두를 읽어 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따를 누군가에게는 이 비하인드 북에 남겨진 이야기가 어쩌면 앞으로를 위한 작은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바람을 가지고 숨 가쁘게 달려오느라 잠시 제쳐둔 이야기를 떠올려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인터뷰 기록에 담긴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는 사람과 사람을 잇고 싶은 마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주변 환경을 보고만 있을 수 없기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 한동네 안에서 커가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고 돌이킬 수 있는 고향에 대한 추억을 그리며 시작되었고 떠올려보니 지나온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아 부대꼈던 마음들까지도 어렵풋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시공간을 살아간대도 많은 사람이 가진 생각은 너무도 여러 가지 모양이기에 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서는, 쏟아야 할 힘과 시간의 크기가 절대 작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종착지까지 부단히 걸어온 분들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우리가 마을 지도를 만들게 된다면'이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오래된 박물관에 차곡차곡 쌓인 사소한 관찰과 기록들을 상상하거나, 조금 더 재미있는 모습을 가진 지도를 만나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동네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번 <마을지도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분들의 뒤를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들이 그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 그 출발선 위에 우리도 서기 위해서. 옆자릴 둘러봤을 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많은 곳에서 작디작은 그림이 그려지고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웅성거림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다섯 개의 마을, 다섯 개의 이야기

비하인드북 편집소감

정다정 길을 찾을때면 핸드폰 속 지도를 꺼내어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설정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 이리저리 방향을 맞추면서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덕분에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로 한 번에 가기도 하지만 가끔은 지도가 가리키는 방향을 도통 이해하지 못해 조금 헤매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중간에 경유로 담은 중간 목적지 때문에 더 복잡하게 길을 걷다 겨우 목적지를 찾기도 합니다. 세세하게 설계된 지도도 이해되지 않아 이 길로 저 길로 걸을 때가 있는데 마을 각자의 이야기를 담은 지도라니 더 궁금해졌습니다.

다섯팀은 각 지도에는 '무엇'을 담았습니다. 생태, 문화재, 재능을 가진 인적 자원, 시장, 오일장. 저의 일상에서 크게 의미를 두고 오래 여러 번 관찰하기보다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들은 오래 여러 번 둘러보고 기록하고 보내는 활동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한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나누며 관계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만들어진 지도의 모양새를 떠나서 마을공동체 분들과 단국대 대학생 팀들에게 가장 먼저 수고했다는 말을 가득 건네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방역이 중요해지면서 약해진 관계들을 다시 잇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마을 지도를 만든 팀들의 인터뷰를 한 편을 읽고 나면 저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글마다 공통으로 '그만'과 '다음' 이야기가 보았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중간에 '그만둘까?'를 고민하였지만, 결말에는 어떤 '다음'을 상상하는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인원으로 만남을 규정지을 정도로 함께 사는 것이 조심스러웠던 2021년에 함께하기를 고민하였던 분들이라면 위드 코로나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때가 오면 더 멋진 다음을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다음 지도를 만드는 일에는 경로 이탈과 재검색이 원활하게 이뤄져 목적지를 가는 일들이 즐겁기를 다정히 바랍니다.

Behind book
비하인드북: 구성을구성하다 편

2021년 12월 발행

발행인 용인문화재단

편집 플랜포히어, 정다정

대화한 사람들 강우빈, 이주연, 박은경

디자인 플랜포히어

